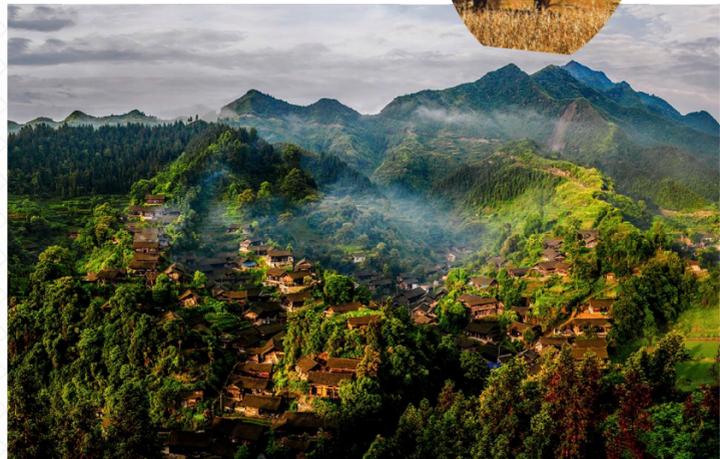




(土家族) 과 묘족(苗族)을 중심으로 원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수백에서 수천년간 상서의 각 민족은 집단을 단위로 이 터전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화합을 이루고 독특한 지형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신비하고 유서 깊은 민족문화를 꽃피워 오늘날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재로 이어졌다. 이곳에는 다수인 토가족, 묘족과 함께 회족(回族), 요족(瑤族), 동족(侗族), 백족(白族) 등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상서지질공원 내의 수많은 고채와 고진은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 토가족, 묘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모습의 전통민속을 그대로 담아냈다. 이야기로 전해오는 상고시대 구전 신화도, 음악과 춤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민족문화와 아름답고 화려한 복식도, 그리고 독특한 맛의 음식문화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다. 그밖에도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상서인(湘西人)들은 이곳에서 농지조성, 주택건축, 도로건설, 다리부설 등의 방식으로 생존의 공간을 애써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걸작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유형 물질과 무형문화재는 모두 상서의 각 민족이 신비로운 자연산수 속에서 자신들의 근면과 지혜로 창조해 낸 기적이다. 뿌리 깊은 문화를 바탕으로 써내려 온 상서의 역사와 매력적인 민족문화는 상서 인문의 독특한 매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록했다.



4 다채로운 생태와 인문

상서지역은 북위 30도에 위치하며 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더위는 우기를 동반하며 사계절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내에 지정된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핵심구역 17개 중 하나이며 "화중지역 생물유전자고"로 유명하다. 공원 내 삼림피복율은 67%에 달하며, 고대 메타세콰이어, 고대 은행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남방의 홍두삼나무(紅豆杉) 등 활화석 식물이 곳곳에 자라고 중국의 희귀, 멸종위기 동물과 특유물종을 포함한 큰 도롱뇽, 천산갑, 크림슨 트라고판, 마카크 원숭이 등 수십종의 동물이 밀렵에서 서식한다.

독특한 지질생태환경은 인류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다. 상서지질공원은 지질경관과 민족문화가 융합하여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곳의 대지와 협곡에서 무려 1만년 전 사람들의 활동 흔적이 발견되었다. 일찍 인류는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이동을 거듭했다. 이렇게 원시부족은 유수(酉水)와 무수(武水)를 거슬러 가다가 험한 지형에 가로막히자 상서에서 토가족

상서지질공원 관광코스

제한된 시간 안에 넓은 지역과 기이한 경관, 매력적인 문화를 사랑하는 상서지질공원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어떤 코스가 좋을까?

1 추천 코스

공원의 관광 콘텐츠는 주로 대지 협곡 지질 경관을 중심으로 한 자연풍경과 상서 소수민족의 문화로 나뉩니다. 이에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아래 6가지 관광코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1 지구의 타임라인에 관심 있는 분

상서지질공원박물관 - 호리빙적암(葫蘆冰磧岩) 단면(에디아카라기) - 캄브리아기 모령통 고장층 "황금못"- 고장 홍석림(오르도비스기) - 루어타(洛塔) 실루리아기 적색층 - 루어타 카르스트 대지(이첩기·삼첩기) - 저자(澤家) 홍석요새(백약기)

2 음식대지(카르스트)에 관심 있는 분

루어타 카르스트 대지 - 루어타 석림 - 영동(靈洞) 천창굴 - 난화동(蘭花洞) - 좌룡협(坐龍峽) - 고장 홍석림 - 대봉충(大峰沖) 협곡 - 여동산(呂洞山) - 금룡(金龍) 대협곡 - 덕항(德夯) 대협곡 - 대룡동(大龍洞) 폭포 - 점타다(尖朵多) 폭포 - 천성산(天星山) 대협곡

3 생물생태에 관심 있는 분

루어타 고수삼 - 좌룡협 국가삼림공원 - 동하(峒河) 국가습지공원 - 왜채(矮寨) 국가삼림공원

4 토가족 문화에 관심 있는 분

오저청(吳著廳) 유적 - 세차하(洗車河) 고진 - 러바라(惹巴拉) - 형장촌(亨章村) - 노사암(老司岩) - 장가비탈(張家坡) - 좌룡협 - 부용진

5 묘족 문화에 관심 있는 분

제심묘채(齊心苗寨) - 길두묘채(吉斗苗寨) - 덕항묘채(德夯苗寨) - 중오묘채(重午苗寨) - 평년묘채(坪年苗寨) - 여동묘채(呂洞苗寨) - 금룡묘채(金龍苗寨) - 십팔동묘채(十八洞苗寨)

6 건축 교통 문화에 관심 있는 분

세차하 양정교(涼亭橋) - 러바라 풍우교(風雨橋) - 러바라 충천루(忠天樓) - 부용진 적각루(吊脚樓) - 왜채 항전도로(抗戰公路) - 왜채대교 - 십팔만(十八灣) 절벽도로 - 제심촌 석두채(石頭寨)

1 특산물과 음식 추천

상서지질공원의 넓은 땅과 천혜의 지질환경은 다양한 특산물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과 토양을 제공하며 거기에 주민들의 지혜까지 더해져 관광기념품으로 적격인 많은 현지 특산물과 민간 공예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황실 조공품이었던 고장 마오젠차, 아미노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한 바오징(保靖) 황금차, 상서의 옥수수를 원료로 전통 비법으로 양조한 동장주(洞藏酒), 셀레늄(Se) 함량이 높은 키위, 중국 최고 품질의 용산(龍山) 백합, 식감과 당도가 일품인 만다린 오렌지(椪柑) 등.

주로 묘족 여성의 자수 도안에서 유래한 묘화(苗畫), 선명한 색감과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 묘족 자수, 토가족의 원단인 시란카푸(西蘭卡普), 청색 프린트의 바틱 원단, 오랜 전통과 세밀한 디테일을 자랑하는 상서 특유의 대나무 공예품 죽편(竹編) 등.

상서의 맛은 "매운 것"과 "말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토가족, 묘족, 한족 특유의 풍미가 어우러져 향토적 색채가 짙은 편입니다. 주로 옥수수, 야채, 무, 생선 등을 주재료로 만든 시고 매운 묘족 산채와 색다른 맛을 내는 말린 고기, 소시지, 두부, 생선, 족발, 콩비지 등의 상서 식미(腊味)와 담백한 중균(椪菌) 버섯, 미나리, 고사리, 야생 죽순 등 토종 산나물, 그리고 웨파오리(血耙鴨), 봉황사반(鳳凰社飯), 상서자바(湘西糍粑), 쌀두부(米豆腐), 토가 매두부(霉豆腐) 등도 있습니다. 지질공원 내 크고 작은 식당에서 음식들을 즉석에서 맛보거나 일부는 포장도 됩니다. 이곳에선 계절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숙박 가이드

상서지질공원은 상서 주정부 소재지인 지서우시(吉首市)와 인접하며 외지 관광객은 지서우시로 오신 다음에 관광코스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까지는 비행기, 열차, 기차 등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질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구이저우 퉁런공항(貴州銅仁機場)이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시와 직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지서우시에서 차로 1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밖에 장가계와 즈장공항(芷江機場)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창사 황화국제공항(長沙黃花國際機場)에서 지서우시까지 382킬로미터의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열차 노선 중 38개가 지서우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장가계-지서우-화이화(懷化)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3개 도시간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지서우시 서구터미널(西口汽車站, 0943-8229161)에는 창사, 퉁런, 청두(成都), 항양, 우한(武漢), 충칭, 화이화 등 도시로 통하는 대형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9번 국도, 바오터우-마오밍 고속도로(a6s), 장가계-화원 고속도로(S10)가 지나가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도 매우 편리합니다.

공원 내에는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마을버스와 관광 포인트 사이를 오가는 전기셔틀, 트랜스퍼 버스, 유람선, 렌트 자전거와 같은 여러가지 모빌리티가 제공됩니다.



상서지질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서주지질공원 관리소

주소: 후난성 상서주 용순현 부용진

우편번호: 416000

전화번호: +86-0743-8232292

팩스번호: +86-0743-8232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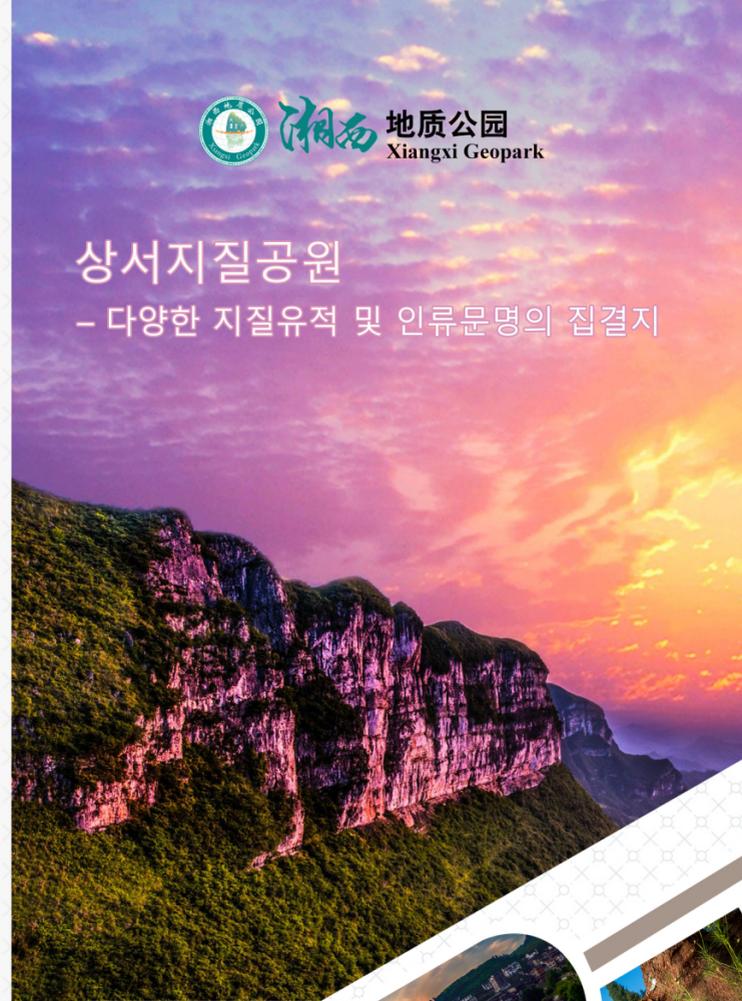
이메일: xxzsjdzy@163.com

웹사이트: <http://dzgy.xxz.gov.cn>



상서지질공원

- 다양한 지질유적 및 인류문명의 집결지



상서주지질공원 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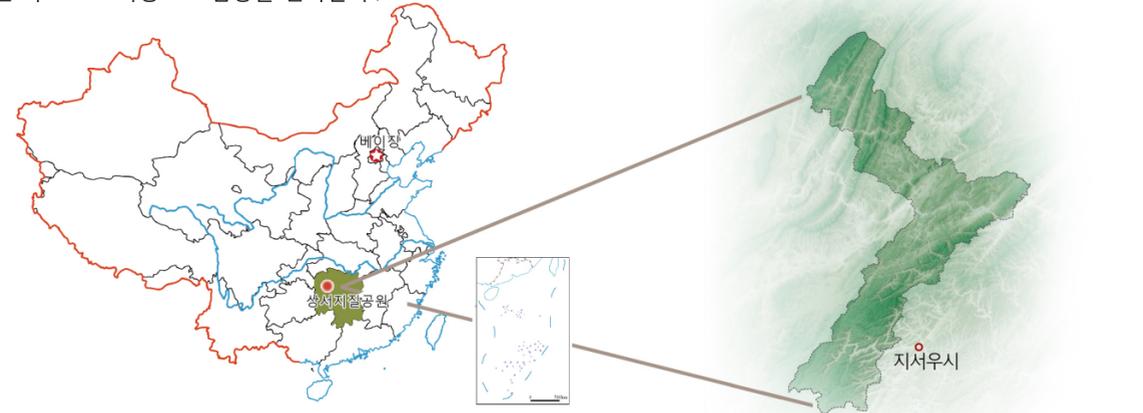


상서지질공원의 4대 특징



1 다양한 카르스트 대지·협곡 경관

지질공원은 중국 남부지역 절단 고원형 카르스트 대지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중국 대륙 전체를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하는 운귀 카르스트 고원 동쪽 변두리 경사지대에 위치한다. 강력한 지질운동에 의해 발생한 갑작스런 절단과 심한 기복이 지형적 특징이며 오랜기간 유수의 침식과 용식 작용 아래 웅장한 절단 고원형 카르스트 대지·협곡 경관을 이루었다. 통계에 따르면 공원 내 카르스트 대지의 면적은 688km²에 달하며, 대지의 지표에는 웅덩이와 돌리네, 라피에와 돌숨이 즐비하고 깊은 협곡과 아찔한 폭포가 장관을 연출한다. 싱크홀, 수갱, 동굴, 벨리, 웅덩이 등 다양한 지형이 복잡하게 중첩된데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천동(穿洞), 돌리네, 천창(天窓), 암벽·돌기둥 등의 다양한 자연경관까지 더하여, 중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카르스트 대지는 보통 협곡과 공존하는데, 대지의 절단과 파열이 심할 수록 협곡은 더 깊고 그 수도 더 많다. 특히 지질공원의 서북부와 남부는 파열과 고각 절리에 의해 촘촘한 망상(網狀) 카르스트 협곡 군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협곡의 양측면에는 암벽, 돌기둥이 즐비하거나 아찔한 폭포가 쏟아지기도 한다.



상서지질공원은 총 면적이 2710 km²로 중국 후난성 상서 토가족·요족자치주에 위치한다 (지리적 좌표: N28° 06' 49.23"—29° 17' 24.26", E109° 20' 13.66"—110° 04' 12.55").

운귀(云貴) 카르스트 고원 동쪽 가장자리의 경사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적색 탄산염 석림과 웅장한 절단 고원형 대지(臺地)·협곡 등의 지질유적이 주요 특징이다. 아울러 전형적인 지각적 사건, 고대 빙하기 사건 및 고생물 유적 등 여러 전형적인 지질현상도 함께 품고 있으므로 양쯔지대(揚子地臺) 진화의 역사 및 운귀고원 가장자리의 절단-파열-해체 과정에 대한 완전한 기록으로 여겨진다. 고풍적이고 소박한 소수민족 문화와 대지·협곡이라는 지리적 환경, 그리고 자연생태계가 결합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우아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이루고 그속에서 특유의 신비한 무릉산(武陵山) 민족 생태문화권을 형성하여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2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홍석림(빨간돌숨)

홍석림은 특별한 돌숨 경관의 일종으로 지질공원 내에서 주로 장고현 유수의 양측에 분포되어 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경관을 구성한 암반층은 두께가 중간 정도로 층이 잘 나뉘어 있으며 오르도비스기의 다완층(大灣組, O1d)과 구뉴탄층(牯牛潭組, O1g)(지금부터 약 4.65-4.7 억년 전)에 속하는 자홍색 결정성 점토질 석회암과 생물쇄설 점토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었다. 암석의 성질, 지각운동으로 인한 주름, 단층과 절리에 따른 지하수와 빗물의 장기적인 용식과 침식의 작용에 지하 용식과 지표 풍화를 거쳐 형태와 조합이 다양한 빨간색 또는 채색의 돌기둥들이 형성되었다. 1000개가 넘는 3-30미터 높이의 돌기둥들은 산의 정상, 비탈, 웅덩이, 벨리 등에서 숲을 이루어 분포되므로써 대표적인 경사 웅덩이형 홍석림을 이루었다. 이곳의 홍석림은 다양한 표면 용식의 형태와 화려한 색채로 아름답고 기이한 경관을 연출하며 전세계 오르도비스기 적색 탄산염 지층에서 성장한 홍석림 경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적색 탄산염 석림의 실증지이기도 하다.



3 캄브리아기의 "황금못(golden spike)"

지질학적으로 두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확정하는 경계의 기준을 "황금못"이라 부른다. 미국의 철도 부설사에서 유래된 황금못이라는 개념은 세계적인 연대층에 대한 "근거"와도 같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동 분야 지질학 연구가 세계적인 선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올림픽 금메달과 월드컵 우승 트로피 못지않은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확정된 "황금못" 72 개 중 중국이 11 개를 보유하고 그중 2 개가 상서지질공원에 있다.



바로 캄브리아기 부용(芙蓉) 배벽층(排碧階) "황금못" 단면(망상 글립타그노스투스의 최초 발견지)과 캄브리아기 묘령통(苗嶺統) 고장층(古丈階) "황금못" 단면(레조피게라에비가타의 최초 발견지)이다. 상서지질공원이 소재한 지역은 아주 먼 옛날 캄브리아기에는 열은 바다였다. 심해(深海) 생물로 진화중이던 천해(淺海)의 고생물이 대량 서식하던 지역으로 지금은 침적되어 탄산염 지층이 되었다. 이렇게 특별한 지질환경에서 형성된 단면은 단일 모양의 암석, 완전한 지층, 연속적인 노두, 선명한 경계선 및 풍부한 화석 등의 특징을 보인다. 석회암 지층 중의 개강골류(開腔骨類) 화석은 삼엽충, 코노돈트, 완족동물, 히오리스토이드(hyolithoid) 등과 공존하는바 이들이 처음으로 발견된 층위를 "국제 링크 포인트"라 부르며 상기에서 언급한 두가지의 "아그노스티다(Agnostida)"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삼엽충이다. 상서지질공원의 화원(花垣) 배벽(排碧)에서 나의계(羅依溪) 고장(古丈)까지 이어진 캄브리아기 침적 지층은 현재 중국에서 캄브리아기 말기의 개강골류 화석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이다. 이를 통해 배벽층(排碧階)과 고장층(古丈階)은 현존 세계 유일의 완전한 캄브리아기 7 단계와 8 단계 지층의 표준 단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상서지질공원의 특징2 -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홍석림(빨간돌숨)

상서지질공원의 특징1 - 다양한 카르스트 대지·협곡 경관